

광주 학생 지역역사에 '높은 관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설문조사

한국사 관심도 60.3%...광주사는 67.5%로 월등 광주학생독립운동 70.4% 인지 '역사인식' 높아

광주지역 학생들은 '한국역사' 보다 '광주지역 역사'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역사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지역학생 70%가 관련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은 25% 수준에 그쳤다.

10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중·고교생 3,164명을 대상으로 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광주역사 관심도는 67.5%로 우리나라 역사 관심도 60.3%에 비해 높았다.

광주역사 관심도는 고교생 70.2%·

초교생 67.7%·중학생 64.7% 순으로 조사됐다.

사안별로는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들이 주동이 돼 일으킨 대표적 항일독립투쟁 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70.4%)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제강점기 3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89%에 비해 낮지만, 6·10만세운동 34.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다만, 지역학생들의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에 대한 인지도는 25.8%에 불과했다. 초교생 25.0%·중학생 25.8%·고등학생 26.6% 등 전반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알게 된 경로는 ▲수업시간 49.9%

▲영상·인터넷 검색 31.9% ▲기념관 방문 14.5% ▲기념행사 참여 3.3%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방문경험은 35.3%에 그쳤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어려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났다.

광주역사를 알게 된 계기는 ▲교과 시간 강의 34.8% ▲TV프로그램 및 다큐 시청 26.9% ▲역사기념관 및 현장 방문 15.3% 순이다.

전문가들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가치 재평가와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강조한다. 특히 초교와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떨어진 중학생들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역사인식 6개 항목·광주학생독립운동 인식 11개 항목에 대해 지난 7~9월까지 사전자료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생과 교사 공개토론·학술세미나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질적인 역사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유·활용할 방침이다.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계자는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이 우리나라는 물론 만주·연해주에 위치한 350여개 학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학술적 증거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학생들에게 광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줄만한 실천적 교육활동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내년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앞두고 광주 학생독립운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알리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만세 시위지 탐방·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기념관 전시시설 재구성 등 다각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기자

경찰, 50대 장발장에 생계 지원 기초수급자·공공근로 신청 도와

경찰이 생활고로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라면을 훔친 50대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했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편의점을 자주 찾는 50대 손님이 라면을 훔쳐 달아났다는 내용으로 절도 발생 신고가 지난 4일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인 동구 동명동 한 편의점을 찾았다. 용의자 인상착의 확보를 위해 돌려본 CCTV 영상에는 편의점 밖 진입대에 놓인 라면 1봉지를 훔쳐 달아는 5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범행장소와 50m 떨어진 주택에서 하 모씨(55)를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하씨는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하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 17분께 동구 한 편의점에서 라면 1봉지를 훔치는 등 일주일간 3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에서 하우스 시공일을 했던 하씨는 업주가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두 달 전부터 일을 그만뒀다고 진술했다. 이후 막노동일을 해보고자 했지만 그것 또한 녹록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 달여 동안 일을 못해 수중에 남은 돈은 5만원이 전부였다. 하씨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선택한 것은 절도였다. 하씨는 평소 자주가던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씩을 구입하고 바깥 진입대에 있는 라면을 집어왔다고 진술했다. 범행이 들롱나지 않자 범행은 계속됐다.

하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경찰은 구청에 긴급지원을 알아 봤다. 하지만 하씨는 해당사항이 되지 못해 민간지원을 통해 쌀과 라면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근로 연계를 위해 동명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와 연계해 기초수급자 신청도 도왔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하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나라 기자

'급여 압류' 광주·전남 교원 5년간 312명 김한표 "교육현장 악영향...대책 검토 필요"

은행빚 또는 세금체납 등으로 지난 5년간 300여명의 광주와 전남 교원들이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과 개인간 사적 채무, 벌금이나 세금체납과 같은 공적 채무' 현황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교원급여 압류 건수는 모두 312건이었다.

급여압류 액수는 지난 5년간 118억

6,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3,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채무 유형별은 광주와 전남의 경우 개인간 사적채무액이 1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은 금융기관 채무액이 51억8,900만원으로 압도적이었다.

김 의원은 "교사들이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빠지게 되면 교육현장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부는 급여압류 교원에 대한 관리 및 회생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가짜 5·18 유공자 '양심선언' 오늘 오전 광주지검 앞서

5·18구속부상자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검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가짜유공자 청산을 위한 양심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비대위는 "1990년 9월 24일 당시 5·18구속자부상자회 회장이었던 이무현씨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동생 이정호씨를 유공자로 만들기 위해 가짜서류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당시 이 회장이 5·18민주화 유공자 서류작성에 필요한 인우보증서에 5·18민주화유공자의 서명이 필요해 동지 유공자에게 서명을 부탁했다"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유공자는 거짓서류에 인우보증 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2000년도에 이무현 회장이 가짜 5·18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제보로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며 "가짜 5·18 유공자를 색출해 진짜 5·18 유공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전국 웰빙댄스 경연대회 10일 오전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5회 전국레크레이션대회 전국 웰빙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한 산들바람이 라인댄스따르릉을 선보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 학교 39곳 교실 공기질 '나쁨'

광주·전남 39개 학교 교실 공기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 학교별 교실 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광주 6개, 전남 33개 학교의 미세먼지가 '나쁨'에 해당했다.

홍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실의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30 $\mu\text{g}/\text{m}^3$ 이하, 초미세먼지 15 $\mu\text{g}/\text{m}^3$ 이하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광민 기자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